濟大新報

發行所 濟大新報社
濟州市龍潭2洞581
電話 ⑤2125-7
우편번호 590

發行編輯兼印刷人 辺時敏
主幹 夫萬根
編輯長 吳起煥

印刷：濟州新聞社
濟州市一徒一洞1280
電話 ⑤3536

學訓

1. 誠實性
2. 自律性
3. 實踐性
4. 敬愛

<한마디>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풀리지 아니하고, 미움이 없을 때에 미움은 풀린다.

—法句經—

79학년도 新入生 820명 募集

4個學科 160名 增科·增員

前期制·系列別 선발

교육학부의 美敎科등은 非系列로

新入生 8백20명을 밖아들일 79학년도 本大學 入學試驗이 79년1월17일 實施된다。敎務課가 따르면 本大學 開校이래 最初로 前期募集(夜間部는 除外) 23일 確定發表한 入試要綱에 하고있고 例年의 學科別募集도 系列別募集으로 轉換되는 등 대폭적인 改革이 이루어졌다。79學年度의 入學定員은 78學年度의 6백60명에비해 1백60명이 불어난 것인데 이는 기관공학과 통신공학과와 야간부의 행정학과 경영학과등 4개학과의 新設에 의한 增員때문이다。

예시성적 50、高校成績 1·5% 반영해

募集方法은 非系列 3개학과(美術敎育科·体育敎育科·家政敎育科)를 제외한 全學科를 人文系列、社會系列、自然系列의 3個系列로 구분해서 하며 이중 自然系列은 다시 基礎系列 3個學部를 地域開發學部、敎育學部、農學部、水産學部등 4個學部로 改編하고 敎養課程部와 夜間部를 農學系、水産系의 셋으로 細分시키고 있다。

入試成績査定은 系列別 應試者및 家政敎育科應試者는 6백80점을 滿點으로 하는데 그내용은 豫備考査성적이 3백40점(50%)、本考査成績이 3백30점(48·5%)、高校내신성적 10점(1·5%)이며 本考査科目은 國語、英語、數學1(또는 2)의 세과목으로 科目當 配點은 각각 1백10점이다。

그러나 美術敎育科와 体育敎育科는 數學이 없는대신 實技試驗을 치르고 그 配點을 3백점으로 하고 滿點은 8백80점이 되고 있다。

한편 出題는 主觀式 50%、客觀式50%로 하게되고 78학년도 農·工·商·水産·体育系高校 출신으로 豫備考査合格者중 本大學의 同一系列에 志願하는 者는 特別전형으로 一定比率을 선발한다。

前期入試日程은 다음과같다。

△원서교부‖78년12월18일~79년1월12일 △원서접수‖78년12월26일~79년1월12일 △시험‖1월17일~19일 △합격자발표‖1월26일。(자세한 것은 本報1면 入試要綱을 참조할것)。

最優秀 JC賞

本大學유스JC에 學內서클인 濟州유스J·C(회장 주판돈·敎3)가 全國最優秀 JC로 뽑혀 지난 7일 韓國JC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이 서클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城山面三達里의 취락구조개선 사업장에서 努力奉仕를 하는등 健全한 活動을 해왔다。

實驗大學으로 指定받아

副專攻制 채택하고 卒業學点낮춰

本大學은 지난 7일 文敎部에 의해 實驗大學으로 指定됨으로써 79學年度 入學生부터 系列別募集、副專攻制、1백40學點 卒業制度가 適用되게 됐다。

實驗大學은 學生들로 하여금 羅列式인 複雜多枝한 學科目에 대한 履修負担을 줄여 專門敎育을 強化하고、一定科目에 대한 副專攻制度를 認定함으로써 社會進出의 門戶를 넓히는데 主目的을 두고있다。

實驗大學 指定에 따라 敎務當局은 學生들이 學期當 履修學點을 現在의 22學點에서 18學點으로 줄이고 卒業時까지 副專攻科目을 履修할 수 있도록 敎科課程을 編成하게 된다。

한편 來年度부터 系列別로 入學한 學生들은 2學年으로 進級할 때에야 學科배치가 이루어지는데 學科배치가 特殊한 性格을 지닌 家政敎育科、美術敎育科、体育敎育科등은 系列別募集에서 除外된다。

그런데 實驗大學에 따르는 이러한 諸반조치는 現在의 在學生에게는 해당안돼 이들은 1백60學點을 履修해야 卒業이 可能하게 된다。

行政·經營科

本大學에 夜間部가 設置돼 79學年度부터 行政科와 經營學科등 2個學科에 각각 40명씩 모두 80명을 모집한다。

지난 10월7일 文敎部로부터 認可된 本大學夜間部는 國立大學으로서는 全國 최초의 것이며 高等敎育履修를 희망하는 濟州道內 職場青年들에게 커다란 福音이 되고있다。

本大學에는 道立當時인 지난 61년까지 國文科등 일부학과에 夜間部가 있었으나 62년 國立移管과 同時에 폐지되었었는데 이번 學校當局이 낸 設置申請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런데 來年度의 夜間部募集은 後期로 하는데 요강은 추후발표된다。

二個學科의 夜間部설치

自然保護運動

전국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고있는 自然保護運動에 발맞추어 本大學에서도 지난 10월5일 各科別로 全道 觀光地와 山과 들을 찾아 자연보호캠페인 팻말을 다는등 훼손된 자연을 淨化하면서、自然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한편 토요일인 지난 9월29일에는 敎職員 30여명과 1학년 3개학부 600여명이 學校주변과 龍頭岩 일대에서 솔선하여 오물을 제거하고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했다。

세미나 開催

統一安保硏究所서

지난 10월 13일 14일 안보연구소(소장 趙文富교수)가 주최한 통일문제학생현상논문 강의실에서는 본대학 등 3개학교 敎授 15名이 지난 1일자로 새로 任命됐다。이들은 學徒護國團의 각 執行部別로 學生들의 活動을 指導하게 되는데、從前까지는 部署別指導가 아니라 一括指導를 해왔다。委員名單은 다음과 같다。

△敎育學部長、農水産學部長、敎務課長、△총무부담당‖康順善、박규은 △훈련부담당‖徐庚林 △문예부담당‖玄容駿、金永和 △새마을부담당‖韓海龍、金鉄元 △체육부담당‖송대진、신광균 △지도부담당‖박정식、夫万根 △여학생부담당‖홍양자

水産敎育會 열려

本大學 臨海硏究所서

全國水産·海洋敎育會議員들은 聯合會의 聯合會 代議員會議가 지난 20일 本大學 臨海硏究所에서 열렸다。

19개 水産및 海洋關係 高等敎育機關長이 참석한 이 會議에서 代理인 한편 運營을 協議하는 한편 水·海洋通信技士 자격증 취득요건의 완화、海洋實習을 위한 협동의 강화등 建議할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그런데 同聯合會의 회장직은 本大學 辺時敏學長이 맡고있다。

産業基地 시찰

本校生 16명參加

本校生 16名이 지난 16日부터 19日까지 4일간에 걸쳐 農藝學敎授(農化學科)의 인솔로 全國의 主要産業基地를 視察했다。

이번 視察은 大學生들에게 發展하는 祖國의 참모습을 보여줌으로써 國家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聯夜 体育大會 열려

本大學 同旅會서

本大學 學生서클인 濟大同旅會에서는 지난 9일 濟州同旅夜間學校、光陽青少年學校、그리고 西歸浦새마을靑少年學校 1백30여명을 대상으로 第一回 全道夜歸体育大會를 열었다。

本大學 運動場에서 열린 이 大會의 경비는 會員들이 주머니를 털어 3만원과 大學當局의 서울보조비로 마련했다。

同旅會의 金仁趙會長은 "靑少年들에게 밝은 來日을 심어주기 위해 이 体育大會를 해마다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金2·銀1·銅2 차지해

59회 全國体典서 개가

지난 12~17일까지 仁川에서 열린 제59회 全國体典에 濟州道選手團이 出戰한 本大學選手들으로 個人種目에서 金메달2개、銀1개、銅2개의 비교적 좋은 成績을 올렸다。

入賞者를 보면 陸上 一般部 8백m에서 銀메달을 차지했던 鄭玩植(体敎·58)선수가 또다시 2백m에서 銀메달을 따냄으로써 濟州道陸上界의 호프로 登場했다。

한편 태권도 一般部 권선수와 씨름 級(植物·1)선수 李淳益、金東黨(体敎·2)선수는 柔級 李桂衍(体敎·3)선수는 銅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나 團体種目인 蹴球와 卓球는 予選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올해의 体典에 처음으로 派遣된 選手들은 學校當局의 면학분위기 高揚方針에 따라 強化訓練을 없애고 正常授業이 끝난 다음에야 연습을 했는데도 이같은 成績을 올린 것은 더욱 값진 것이고 받아 들여지고 있다。

▲目下読書の季節、年末年始の休暇を利用して、本校の図書館は、多くの学生で賑わっている。▲図書館は、学生の学習の場であり、また、学生の生活の場でもある

社說

이 좋은 季節에…。

벌써 二學期에 들어선 지 二個月이 지났다。앞으로 二個月 정도 있으면 겨울방학을 맞게 된다。동시에 그것은 한 學年을 마무리 하는 結果도 된다。어느 새 時間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진부한 表現이지만 가을은「思索의 季節」이요,「結實의 季節」이라고 한다。이 좋은 季節에 무엇인가 조용히 思索하고 또한 結實을 맺지 않아서는 안 될 大學生들에게는 지금 스스로 지나온 날들을 되새겨 보고 앞날을 計劃하고 設計하지 않으면 안된다。

흔히 요즘 젊은이들은 가벼워서 깊이가 없다고 한다。깊이 생각해서 發言하고 行動하는 것이 아니라 即興的으로 發言하고、即興的으로 行動한다는 것이다。問題를 심게 解決하려 하는가 하면 어려운 문제는 그것을 끈기있게 붙고 늘어져 解決하려 하기보다 회피하려도 한다。또 成就하고자 하는 目標를 세워 놓고 서서히 한 階段 한階段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階段을 뛰어 오르려 한다고 批判한다。

이러한 評言과 批判이 옳은 것이냐、그른 것이냐 하는 것은 젊은이들、特히 大學生들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볼 問題다。그리하여 部分的이든 全面的이든 이런 評言과 批判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大學生들 스스로 크게 反省할 問題일 것이다。賢明한 學生이라면 이를 계기로 自省의 기회로 삼고 보다 나은 未來를 設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오늘의 大學生들은 대체로 讀書가 不足한 것 같다。가장 感受性이 예민하고 또 讀書를 많이 했어야 할 高等學校 二、三學年 때 入學試驗을 공부하느라고 마냥히 읽었어야 할 책들을 읽지 못하고 大學에 들어온 學生들이 많다。아니 모두가 그렇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때문에 大學에 들어온 후에는 많은 量의 讀書를 하지않아서는 안 된다。哲學·文學·歷史등 敎養人으로서 갖추어야 할 基本的인 敎養書籍을 耽讀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大學生들은 부지런히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읽는 것 같지도 않고 하더라도 읽는 者와 들어서 조용히 對話하는 것、그것은 冊을 읽는 學生들에게 힘을 줄것이다。지혜와 용기를 줄 것이다。깊이를 줄 것이다。그리고 思索의 源泉을 주고、어떻게 人生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暗示를 줄 것이다。모말과 휴머니티가 欠如된 知識과 富、지혜가 배제된 勇氣、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結果를 가져오는가를 조용히 되새겨 보면서 讀書와 思索의 나날들을 보내는 것이 오늘을 사는 大學生들의 지혜일 것이다。

學生들이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讀書와 旅行이 그것이다。可能하다면 放學을 利用하여 여행을 다닐 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다。外國의 學生들처럼 이웃 나라까지 여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國內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하지만 讀書의 경우는 여행과는 다르다。하겠다는 마음이 問題다。깊어가는 가을밤에、그리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에 大學生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책을 벗하고 그 冊의 著者와 둘이서 조용히 對話하는 것、그것은 冊을 읽는 學生들에게 힘을 줄것이다。지혜와 용기를 줄 것이다。깊이를 줄 것이다。그리고 思索의 源泉을 주고、어떻게 人生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暗示를 줄 것이다。모말과 휴머니티가 欠如된 知識과 富、지혜가 배제된 勇氣、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結果를 가져오는가를 조용히 되새겨 보면서 讀書와 思索의 나날들을 보내는 것이 오늘을 사는 大學生들의 지혜일 것이다。

敎授論文

日本語起源上의 重層性

金公七
(日本語學科·專講)

韓國語와의 比較研究가 必要

알타이語系의 性格이 有力視

日本語가 周囲의 言語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어느 系統의 語族에 속할 것인가 하는 것은 明治(1868 近代日本의 시초)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많이 논의돼 온 문제다。

그런데、日本語처럼 그 起源에 대하여 다른 言語와 견주어 보고、이그룹은 크게는 蒙古 滿洲、퉁그스、土耳其系와 한가지로 Altai 語族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西洋 學者에 의해서 Ural-Altai語와 親族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창되었다。1901년에서 5년간 独逸을 유학하고 돌아온 藤岡勝二(huzioka-kacuzi)가 이에 호응하여「日本語의 位置」라는 講演에서 Ural-Altai 語의 특질을 14가지를 들고 日本語가 이에 유사하다고 지적함으로써 큰 자극이 되었다。그 14가지는 ①語頭子音群이 오지 않는다。②固有語에서 頭頭子音 /r/音 희귀 ③母音調和의 존재(奈良時代까지 존재함) ④冠詞가 없다。⑤文法上 性이 없다。⑥膠着的인 動詞의 변화 ⑦助動詞의 발달 ⑧代名詞의 변화가 없다。前置詞가 없다。後置詞가 이에 임한다。⑩英語의「have」에 해당된 말이 없다。그 대신「~에~이 있다」라는 表現法을 쓴다。⑪形容詞의 比較級이라는 것이 없다。⑫文末에서 文体를 결정한다。⑬接続詞의 사용이 적다。⑭語順이 修飾語는 被修飾語의 앞에、目的語는 動詞의 앞에로 되어 있다。

그러나、筒條的인 특징의 제시만으로 日本語가 Ural-Altai 語族에 속한다는 결정적인 증명은 이룩하지 못한다。적어도 同系 혹은 親族 關係의 결정에는 規則的인 音韻의 對応과 文法의 一致를 찾아내야 한다。規則的인 分節音의 對応 關係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확인된 一連의 分節音으로 형성된 語形式에 대해서도 對応 關係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印歐語族에서 이러한 수속을 거쳐 語系를 수립했지만 日本語와 Altai語와의 관계는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한 방법으로 日本語와 同系임이 증명된 것은 琉球語다。日本語와 琉球語와는 音韻、accent、文法、語彙面에서 規則的이며 근본적인 一致点이 服部四郎(hattori-siroo)에 의하여 제시되었다。이보다 앞서、일찍부터 外國人(Chamberlain,B.H)에 의하여 그렇게 면밀한 것은 아니지만 日琉語의 親族 關係를 증명한 것이 있다。

그리고、服部는 美國學者 M. Swadesh가 創案한 言語年代學 또는 統計學的 方法을 이용하여 日本의 京都方言과 琉球語의 首里方言을 비교하여 共通의 残存語가 약 68.4%인 데서 兩語의 分裂 年代를 지금부터 1453년 이전으로 산출하기도 했다。

어쨌든、日本語와 Altai 語와의 관계는 결정된 것이 못된다 할지라도 日本語가 Altai 語的인 성격을 다분히 띤 점에서 가장 有力視되고 있다。

앞으로 Altai 語系 가운데서 가장 인접하고 言語 構造가 가장 유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韓國語와의 比較 研究의 성과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韓國語와 日本語와의 比較研究는 그 이전에 斷片的인 언급이 없지 않았으나、1875년에 발표된 W.G.Aston의 論文(A Comparative Study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는 1864年 日本公使館 通訳으로부터 출발하여 韓國에서 總領事를 거쳐 日本公使官으로 있었던 만큼 韓國語와 日本語에 精通한 사람이다。比較의 방법으로는 音韻 對応의 원칙을 10여 가지、그리고 比較 語彙를 제시하였다。그 70여를 精確하지 못한 흠은 있으나 西歐的인 比較의 方法을 처음으로 試図해 본 데서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日人學者로는 1889년의 大矢透(ooya-tooru)의 語彙音을 添加、그리고 母音/e/와/a/의 對応 등을 규칙적으로 보이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音則的인 파악이 以後 大野晋(oono-susumu) 등에 의하여 진전되었으나 (日本語와 朝鮮語와의 語彙의 比較에 관해서 1952、日本語의 起源 1957)그 理由가 說明될만한 對応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近間에 이르러는 韓國語를 전너 뛰고 日本語와 Tungus와의 비교 작업도 있으며、蒙古語와의 語彙的인 比較도 있다。

이러한 Altai系 言語와의 접근에서 日本語의 系統을 밝히는 실마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그렇지만 日本語와 Altai 語와의 結付에는 우선 韓國語에서 시작하여 Tungus 語와의 形態的 比較를 하고、그 다음에 蒙古語、터어키語와의 比較로 옮기는 것이 正常的이다。

어쨌든、Altai語와 日本語를 결부시키는 사람은 거의가 韓國語와 日本語를 가깝게 본다。

(kanazawa-syoosaburoo)가 이들을 集大成한 比較論(日韓両國語同系論)을 내놓았다。이 것은 그때까지의 研究를 集大成하고 이를 音韻 文法의 비교를 試図한 것이다。音韻의 比較는 싱은 語形과 意味가 유사한 語彙 150여의 비교로서 方法的 격식을 갖추지 않는 단순한 對照에 불과한 것들이다。

이를 方法的으로 精密化하고 또 韓日語 両國語同系論을 日本語 Altai 同系論에 결부시킨 것이 핀랜드의 初代駐日公使 G·J Ramstedt이다。1924、26년 이후에 제시된 그의 論文(A Comparison of the Altaic Language with Japanese, Two Word of Korean, Japanese) 안 보다 精密한 對応을 論証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다만 인용된 語例가 얼마되지 않은 게 아쉽다。

Jap.Kata(片)~Kor.Kolta(半)、Jap.to(砥石)~Kor.tol(石)의 對応이나、Jap he(舟)~Kor.Pa(舟)、Jap heso(臍)~Kor.pa(腹)、Jap.hebi(蛇)~Kor.pam(蛇)의 對応을 들고 그 傍証으로 Jap.Kuma(熊)~Kor.Kom(熊)、Jap.Kasa(笠)~Kas(笠)、Jap.hata(畑)~Kor.pat(田)、Jap shiru-ko(汁粉)~Kor.sul(酒)、Jap iye(ipe)(家)~Kor.chip(家)을 예시한 것이다。

그 중에서 티벳·버어마語族과 日本語와 同系라는 學說이 일찍부터 주장되어 왔는데、그것이 G·K·perk에 의해서도 對応 關係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印歐語族에서 이러한 수속을 거쳐 語系를 수립했지만 日本語와 Altai語와의 관계는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주로 代名詞 接続詞 數詞 動詞 등에 比較를 시도한 것인데、아직도 내부 体系가 再構되고 있지 않은 티벳語와 버어마語 그 많은 方言 가운데、유사한 語彙를 찾아 무리로 맞춰 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다음에는 南島諸語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語系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것이 있다。이 語派는 西로 마다스칼에서 스마트라、말레이、자바에서 北上하여 세레베스、보르네오、필리핀、台湾에까지 분포되어 있고 심지어 琉球지방의 原住民도 인도네시아系統이라고 한다。

특히 接頭辞는 일찍부터 Altai系語(터어키、蒙古、퉁그스)에 없는 非Altai的 要素로서 南方系語에 보이는 특징이라 여겨 온 것이다。

南方系起源說이 유력한 것은 이러한 言語적인 관련성에도 있지만、關聯科學에서의 証言이 더 강력한 것이다。그것은 稻作文化、母系的인 社會 遺習 習俗에 관한 것이다。그래서、彌生時代에 地方系의 Altai 渡來 이전에 南方系의 繩文時代의 문화를 이룩한 것으로、그 重層性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文法的인 語順 등 構造面에서 다른 인도네시아語하고는 言語의 基層으로서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으나 日本語 構造를 결정짓는 系統的인 관계로는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최근에는 村山七郎에 의하여 北方系와 南方系의 混合言語說이 제기되고 있다。이 경우의 混合은 異系 言語간에 단순한 상호 영향을 뜻하지 아니한다。그런 뜻이라면、세계의 모든 言語가 순수한 言語가 아니고 混合 言語가 된다는 것이 된다。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런 뜻에서가 아니고 異系 言語의 形態의 混合이라는 것이다。예를 들어서、語幹은 南島系 語彙지만 活用 形式은 北方語式으로 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세계중에 이러한 言語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現在 실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더러 보고되고 있다。

村山에 의하면、日本語가 이러한 混合語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고 최초로 말한 사람은 소련의 言語學者 포리와노프다。美國에서도 유력한 日本語 研究家이며 Altai語에 능통한 R.A.Miller는 日本語와 韓國語와 琉球語를 합쳐 뭉뚱그려 原始 Altai語—原始北半島 Altai 語의 分化를 거친 原始半島海洋語(原始韓日語)에 소속시키고 있다。

2、日本語南方起源說

둘째는 日本語 南方起源說이다。南方語라 하여도 그 사용 범위가 대단히 넓다。太平洋 南洋에 분포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大陸 내부의 東南部에 속하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다。前者를 南島語族、後者를 南亞族이라 구분하고 또 이를 南方語族으로 크게 묶기도 한다。

그 첫째가 接辞의 발달、代名詞 조직에 있어서의 近称、中称、遠称의 구별이 있는 것이며、(韓國語와 日本語의 특징임)

둘째가 현저한 語彙의 類似例를 들고 農耕 등의 土着的인 生活語와 특히 人体語의 類似性을 강조하고 있다。Aino語의 참 성격을 이해 못한 사람이 外形만 가지고 비교해서 類似形의 있다는지 없다는지 안이하게 판단을 내리는데 대한 하나의 경고라고 생각한다。앞으로는 이러한 방면에 주력하여 철저한 形態分析이 필요하다。

Aino語가 실지로 日本의 祖語였다 하더라도 너무나 오랜 옛날이요、Aino는 文字가 없는 民族으로 文献을 남기지 않았고 해서 系譜 관계는 論証하기는 힘든 일이다。韓半島 또는 南方으로부터의 수차의 言語 浸蝕과 渡來는 Aino語의 基層을 분해하고 남음이 있다。그것이 오늘까지 견디고 온 것이 결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는 Aino語系 지명이라 할 수 있다。그 이상의 것은 推論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現状이다。

지금까지의 系統論을 마무리하면 日本語는 起源上 重層的인 要素가 있다。그것이 混合語的인가 殘存語的인 것인가는 앞으로의 研究에 매어 있지만 그 重層의 構造는 最小 2에서 4까지에 이르는것이다。

重層 그의 構造는 北方語/南方語/Aino語이며 3의 構造는 北方語/南島語/Aino語이며、4의 構造는 Ataiㅣ諸語/南島語/南亞語/Aino語이다。2~4는 重層의 關係를、/는 表層 대 基層의 관계를 나타낸다。

外形比較 止揚코 철저한 語源形態 분석해야
接頭辭가 발달하고 母音的 言語의 性格강해

이들은 日本語에서의 語中 //子音의 脫落과 語末子音을 添加、그리고 母音/e/와/a/의 對応 등을 규칙적으로 보이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音則的인 파악이 以後 大野晋(oono-susumu) 등에 의하여 진전되었으나 (日本語와 朝鮮語와의 語彙의 比較에 관해서 1952、日本語의 起源 1957)그 理由가 說明될만한 對応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近間에 이르러는 韓國語를 전너 뛰고 日本語와 Tungus와의 비교 작업도 있으며、蒙古語와의 語彙的인 比較도 있다。

이러한 Altai系 言語와의 접근에서 日本語의 系統을 밝히는 실마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그렇지만 日本語와 Altai 語와의 結付에는 우선 韓國語에서 시작하여 Tungus 語와의 形態的 比較를 하고、그 다음에 蒙古語、터어키語와의 比較로 옮기는 것이 正常的이다。

어쨌든、Altai語와 日本語를 결부시키는 사람은 거의가 韓國語와 日本語를 가깝게 본다。

(kanazawa-syoosaburoo)가 이들을 集大成한 比較論(日韓両國語同系論)을 내놓았다。이 것은 그때까지의 研究를 集大成하고 이를 音韻 文法의 비교를 試図한 것이다。音韻의 比較는 싱은 語形과 意味가 유사한 語彙 150여의 비교로서 方法的 격식을 갖추지 않는 단순한 對照에 불과한 것들이다。

이를 方法的으로 精密化하고 또 韓日語 両國語同系論을 日本語 Altai 同系論에 결부시킨 것이 핀랜드의 初代駐日公使 G·J Ramstedt이다。1924、26년 이후에 제시된 그의 論文(A Comparison of the Altaic Language with Japanese, Two Word of Korean, Japanese) 안 보다 精密한 對応을 論証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다만 인용된 語例가 얼마되지 않은 게 아쉽다。

Jap.Kata(片)~Kor.Kolta(半)、Jap.to(砥石)~Kor.tol(石)의 對応이나、Jap he(舟)~Kor.Pa(舟)、Jap heso(臍)~Kor.pa(腹)、Jap.hebi(蛇)~Kor.pam(蛇)의 對応을 들고 그 傍証으로 Jap.Kuma(熊)~Kor.Kom(熊)、Jap.Kasa(笠)~Kas(笠)、Jap.hata(畑)~Kor.pat(田)、Jap shiru-ko(汁粉)~Kor.sul(酒)、Jap iye(ipe)(家)~Kor.chip(家)을 예시한 것이다。

그 중에서 티벳·버어마語族과 日本語와 同系라는 學說이 일찍부터 주장되어 왔는데、그것이 G·K·perk에 의해서도 對応 關係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印歐語族에서 이러한 수속을 거쳐 語系를 수립했지만 日本語와 Altai語와의 관계는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한 방법으로 日本語와 同系임이 증명된 것은 琉球語다。日本語와 琉球語와는 音韻、accent、文法、語彙面에서 規則的이며 근본적인 一致点이 服部四郎(hattori-siroo)에 의하여 제시되었다。이보다 앞서、일찍부터 外國人(Chamberlain,B.H)에 의하여 그렇게 면밀한 것은 아니지만 日琉語의 親族 關係를 증명한 것이 있다。

그리고、服部는 美國學者 M. Swadesh가 創案한 言語年代學 또는 統計學的 方法을 이용하여 日本의 京都方言과 琉球語의 首里方言을 비교하여 共通의 残存語가 약 68.4%인 데서 兩語의 分裂 年代를 지금부터 1453년 이전으로 산출하기도 했다。

어쨌든、日本語와 Altai語와의 관계는 결정된 것이 못된다 할지라도 日本語가 Altai 語的인 성격을 다분히 띤 점에서 가장 有力視되고 있다。

앞으로 Altai 語系 가운데서 가장 인접하고 言語 構造가 가장 유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韓國語와의 比較 研究의 성과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韓國語와 日本語와의 比較研究는 그 이전에 斷片的인 언급이 없지 않았으나、1875년에 발표된 W.G.Aston의 論文(A Comparative Study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는 1864年 日本公使館 通訳으로부터 출발하여 韓國에서 總領事를 거쳐 日本公使官으로 있었던 만큼 韓國語와 日本語에 精通한 사람이다。比較의 방법으로는 音韻 對応의 원칙을 10여 가지、그리고 比較 語彙를 제시하였다。그 70여를 精確하지 못한 흠은 있으나 西歐的인 比較의 方法을 처음으로 試図해 본 데서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日人學者로는 1889년의 大矢透(ooya-tooru)의 語彙音을 添加、그리고 母音/e/와/a/의 對応 등을 규칙적으로 보이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音則的인 파악이 以後 大野晋(oono-susumu) 등에 의하여 진전되었으나 (日本語와 朝鮮語와의 語彙의 比較에 관해서 1952、日本語의 起源 1957)그 理由가 說明될만한 對応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近間에 이르러는 韓國語를 전너 뛰고 日本語와 Tungus와의 비교 작업도 있으며、蒙古語와의 語彙的인 比較도 있다。

이러한 Altai系 言語와의 접근에서 日本語의 系統을 밝히는 실마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그렇지만 日本語와 Altai 語와의 結付에는 우선 韓國語에서 시작하여 Tungus 語와의 形態的 比較를 하고、그 다음에 蒙古語、터어키語와의 比較로 옮기는 것이 正常的이다。

어쨌든、Altai語와 日本語를 결부시키는 사람은 거의가 韓國語와 日本語를 가깝게 본다。

(kanazawa-syoosaburoo)가 이들을 集大成한 比較論(日韓両國語同系論)을 내놓았다。이 것은 그때까지의 研究를 集大成하고 이를 音韻 文法의 비교를 試図한 것이다。音韻의 比較는 싱은 語形과 意味가 유사한 語彙 150여의 비교로서 方法的 격식을 갖추지 않는 단순한 對照에 불과한 것들이다。

이를 方法的으로 精密化하고 또 韓日語 両國語同系論을 日本語 Altai 同系論에 결부시킨 것이 핀랜드의 初代駐日公使 G·J Ramstedt이다。1924、26년 이후에 제시된 그의 論文(A Comparison of the Altaic Language with Japanese, Two Word of Korean, Japanese) 안 보다 精密한 對応을 論証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다만 인용된 語例가 얼마되지 않은 게 아쉽다。

Jap.Kata(片)~Kor.Kolta(半)、Jap.to(砥石)~Kor.tol(石)의 對応이나、Jap he(舟)~Kor.Pa(舟)、Jap heso(臍)~Kor.pa(腹)、Jap.hebi(蛇)~Kor.pam(蛇)의 對応을 들고 그 傍証으로 Jap.Kuma(熊)~Kor.Kom(熊)、Jap.Kasa(笠)~Kas(笠)、Jap.hata(畑)~Kor.pat(田)、Jap shiru-ko(汁粉)~Kor.sul(酒)、Jap iye(ipe)(家)~Kor.chip(家)을 예시한 것이다。

混合言語說도 제기돼
아이누語的인 要素 잔존해
南方語와도 類似点이 많아

그러나、이들 言語가 主語、敍述語、目語의 語順으로 表現되고 語根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言語의 위치에 따라 文法的 機能이 달라지는 등의 文法上 특징이 비교상의 장애가 된다。

다음에는 南島諸語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語系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것이 있다。이 語派는 西로 마다스칼에서 스마트라、말레이、자바에서 北上하여 세레베스、보르네오、필리핀、台湾에까지 분포되어 있고 심지어 琉球지방의 原住民도 인도네시아系統이라고 한다。

특히 接頭辞는 일찍부터 Altai系語(터어키、蒙古、퉁그스)에 없는 非Altai的 要素로서 南方系語에 보이는 특징이라 여겨 온 것이다。

南方系起源說이 유력한 것은 이러한 言語적인 관련성에도 있지만、關聯科學에서의 証言이 더 강력한 것이다。그것은 稻作文化、母系的인 社會 遺習 習俗에 관한 것이다。그래서、彌生時代에 地方系의 Altai 渡來 이전에 南方系의 繩文時代의 문화를 이룩한 것으로、그 重層性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文法的인 語順 등 構造面에서 다른 인도네시아語하고는 言語의 基層으로서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으나 日本語 構造를 결정짓는 系統的인 관계로는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최근에는 村山七郎에 의하여 北方系와 南方系의 混合言語說이 제기되고 있다。이 경우의 混合은 異系 言語간에 단순한 상호 영향을 뜻하지 아니한다。그런 뜻이라면、세계의 모든 言語가 순수한 言語가 아니고 混合 言語가 된다는 것이 된다。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런 뜻에서가 아니고 異系 言語의 形態의 混合이라는 것이다。예를 들어서、語幹은 南島系 語彙지만 活用 形式은 北方語式으로 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세계중에 이러한 言語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現在 실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더러 보고되고 있다。

村山에 의하면、日本語가 이러한 混合語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고 최초로 말한 사람은 소련의 言語學者 포리와노프다。美國에서도 유력한 日本語 研究家이며 Altai語에 능통한 R.A.Miller는 日本語와 韓國語와 琉球語를 합쳐 뭉뚱그려 原始 Altai語—原始北半島 Altai 語의 分化를 거친 原始半島海洋語(原始韓日語)에 소속시키고 있다。

2、日本語南方起源說

둘째는 日本語 南方起源說이다。南方語라 하여도 그 사용 범위가 대단히 넓다。太平洋 南洋에 분포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大陸 내부의 東南部에 속하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다。前者를 南島語族、後者를 南亞族이라 구분하고 또 이를 南方語族으로 크게 묶기도 한다。

그 첫째가 接辞의 발달、代名詞 조직에 있어서의 近称、中称、遠称의 구별이 있는 것이며、(韓國語와 日本語의 특징임)

둘째가 현저한 語彙의 類似例를 들고 農耕 등의 土着的인 生活語와 특히 人体語의 類似性을 강조하고 있다。Aino語의 참 성격을 이해 못한 사람이 外形만 가지고 비교해서 類似形의 있다는지 없다는지 안이하게 판단을 내리는데 대한 하나의 경고라고 생각한다。앞으로는 이러한 방면에 주력하여 철저한 形態分析이 필요하다。

Aino語가 실지로 日本의 祖語였다 하더라도 너무나 오랜 옛날이요、Aino는 文字가 없는 民族으로 文献을 남기지 않았고 해서 系譜 관계는 論証하기는 힘든 일이다。韓半島 또는 南方으로부터의 수차의 言語 浸蝕과 渡來는 Aino語의 基層을 분해하고 남음이 있다。그것이 오늘까지 견디고 온 것이 결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는 Aino語系 지명이라 할 수 있다。그 이상의 것은 推論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現状이다。

지금까지의 系統論을 마무리하면 日本語는 起源上 重層的인 要素가 있다。그것이 混合語的인가 殘存語的인 것인가는 앞으로의 研究에 매어 있지만 그 重層의 構造는 最小 2에서 4까지에 이르는것이다。

重層 그의 構造는 北方語/南方語/Aino語이며 3의 構造는 北方語/南島語/Aino語이며、4의 構造는 Ataiㅣ諸語/南島語/南亞語/Aino語이다。2~4는 重層의 關係를、/는 表層 대 基層의 관계를 나타낸다。

2、아이누語 祖語說

세째는 Aino語 祖語說이다。굳이 애를 써서 否定할 필요없이 日本의 原住民은 Ainu였다는 것은 아직도 유력한 것으로 여긴다。

東北地方(青森·岩手·秋田)에는 Pet, nai(모두 河流의 뜻) 등 Ainu系 地名이 残存되어 있으며、차차 南下할수록 희박하게 나타난다。그것은 逆으로 Ainu의 北上을 証言한다。

考古學者 가운데는 日本 最古의 石器時代人인 繩文式 文化人이 즉 Ainu라고 한다。繩文式 文化의 특징인、貝塚에서 발견되는 人骨의 測定에서 現代 Ainu와 매우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오히려、최초에 Aino語를 연구한 분들이 Aino語의 組合的인 性格과 20進法的인 數詞 体系를 가지고 日本語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지금은 그것은 日本語 및 韓國語와 同系의 蓋然性이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허나 同系라 할지라도 日本語와 同系인 Altai諸語와의 관계보다는 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그것은 時間의 軸에서 세워본다면、어느 仮定된 祖語에서 分派된 Ainu語가 일찌기 日本에서 행해지고、나중에 이와 同系 관계가 있는 韓國語 또는 Altai語가 日本에 건너 온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服部의 言語年代學的 推算에 의하면、韓國語와 日本語의 分裂年代는 늦어도 4700년 이전이고、Aino語와 이들 言語와는 7000여년 내지 1만년 전이다。

Ainu語와의 관계의 추구에서 가장 難問題가 Ainu語의 輯合語的인 성격이다。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仏語 혹은 日本語에서도 보이는 것들이다。그러한 걸다란 語形이 語源分析되고、語根이 抽出됨으로써 比較가 가능하게 되는 것도 있다。例를 들어서 Ainu語의 kur(影)、niskur(雲) kunne(←kur+ne)(黑)、ekurok(黑)에서 語根 kur을 抽出하고、日本語의 kurosi(黑)、kurai(暗)、kuru(暮)에서 語根 kur을 抽出하고 비교하는 것이다。더우기 여기에 韓國語의 kurum(裏)과 비교하기도 한다。

또 基礎語彙에서도 다음과 같은 形의 類似가 있다。

(後項이 日本語)
kap~kapa(皮)、se~se(背)、mat~me(女)、tek~te(手)、an~a(我)、ne-na~na(何)、poye~poru(掘)

그래서 Ainu 출신의 言語學者 知里真志保(siri-masiho)는 Ainu語의 系統에는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으나、言語 研究에서의 語源分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그것은 Ainu語의 참 성격을 이해 못한 사람이 外形만 가지고 비교해서 類似形의 있다는지 없다는지 안이하게 판단을 내리는데 대한 하나의 경고라고 생각한다。앞으로는 이러한 방면에 주력하여 철저한 形態分析이 필요하다。

Aino語가 실지로 日本의 祖語였다 하더라도 너무나 오랜 옛날이요、Aino는 文字가 없는 民族으로 文献을 남기지 않았고 해서 系譜 관계는 論証하기는 힘든 일이다。韓半島 또는 南方으로부터의 수차의 言語 浸蝕과 渡來는 Aino語의 基層을 분해하고 남음이 있다。그것이 오늘까지 견디고 온 것이 결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는 Aino語系 지명이라 할 수 있다。그 이상의 것은 推論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現状이다。

지금까지의 系統論을 마무리하면 日本語는 起源上 重層的인 要素가 있다。그것이 混合語的인가 殘存語的인 것인가는 앞으로의 研究에 매어 있지만 그 重層의 構造는 最小 2에서 4까지에 이르는것이다。

重層 그의 構造는 北方語/南方語/Aino語이며 3의 構造는 北方語/南島語/Aino語이며、4의 構造는 Ataiㅣ諸語/南島語/南亞語/Aino語이다。2~4는 重層의 關係를、/는 表層 대 基層의 관계를 나타낸다。

79년도
해군예비역무관후보생
모 집 요 강

一、모집인원:○○명
(함경과○○명·해병과○○명)

二、지원자격
1) 함 경 과
①79학년도 어로학과 제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②58년3월1일—62년2월28일 출생한 대한민국 미혼남자
(단、58년생은 징병검사 필한 자)
2) 해 병 과
①79학년도 3학년에 진급할 건학과 (단、어로과 제외)
②57년1월1일—61년2월28일 출생한 대한민국 미혼남자
3)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4)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三、원서교부 및 접수
1) 기간:1979년1월10일—2월3일까지
(단、해병과는 78년11월1일—12월30일까지)
2) 원서교부및접수장소:해군제1002학생군사교육단 행정과

四、구 비 서 류
1) 예비역무관후보생지원서:(소정양식) 1부
2) 호 적 등 본:1부
3) 주민등록등본:2부
3) 병적증명서(본적지 병무청장、구청장、시장、읍·면장이 발행):1부
4) 사진(2·5㎝×3㎝):5매

五、선발예정일
1979년2월5일—2월7일

六、선발방법
1) 신 체 검 사
①신장:160—185㎝(단、만20세이상자는162㎝이상)
②체중:50—76㎏(단、만20세이상자는 54㎏이상)
③흉위:신장의 2분의1이상
④시력:양안최소나안시력1·0이상(색맹·색약이아닌자)
⑤혈압:90/60—150/90범위내인자
(흉분시 야기되는 일시적 혈압상승은 합격)
⑥기타:해군예비사관후보생신체검사 갑종기준에 의거함
2) 체 능 검 사
①100㎜달리기
②제자리넓이뛰기
③턱 걸 이
④수류탄던지기
⑤2、000㎜달리기
3) 필 기 고 사
①합정과는 어로과제1학년입학시험성적으로 가름한다
②해병과는 학교 1·2학년성적으로 가름한다

七、합격자발표:추후공고

八、입단예정일:1979년4월2일

九、입단장소:해군제1002학생군사교육단

十、기 타
1)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자는 졸업과동시에 해군예비역 소위로 임관됨
2)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당학군단행정과에 문의할것

1978년 10월 일

해군제1002학생군사교육단

統一安保懸賞論文當選作 要旨

北傀의「南北聯邦制案」批判

姜聖男 (開發行政學科·3年)

宣傳効果노린 一律背反的 提案

國際法上聯邦의 形式보다 國家聯合 가깝고 實際的으로는 共產主義的 性格지녀

基礎的要件인 理念的 同質性 결여

기회를 보아 武力挑發감행의 底意

南韓의 反共意識 弱化시키기위한 計略

聯邦成立의 先決要件은 전혀 言及안해

統一問題 論文 公募 및 세미나를 마치고

趙文富教授 (統一安保研究所長)

一、序論

日帝의 治下에서 벗어난 解放 15週年紀念式을 거행하는 群衆大會에서 北韓의 金日成은 그의 演說을 通하여 北韓聯邦案을 제의했다。韓國統一方案으로 聯邦案이 선을 보인 것은 1960년8월15일의 일이다。그 후 여러차례에 걸쳐 제안된 바 있으며 72년 우리의 6·23宣言이 發表된 그날 오후에 金은「高麗聯邦共和國」이라는이름까지 내놓았었다。또한 지난 4월12일、美國을 訪問한「초세스쿠」루마니아大統領은「카터」大統領과의 會談에서 「카터」韓國을 再結合시킬 手段으로 南北聯邦制案을 거론했으나、美側은、南北對話마저 中斷된 현단계에서 聯邦制擧論은 問題解決에 도움이 안된다는 理由를 들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歷史的으로나 現實的 見地에서 보아 國家形成에 대한 이해을로기적 기초가 다르고 상호간에 社會的 同質性이 없으며 對外關係에서 共通된 유대의식을 가질 수 없는 職後의 分斷國家 狀況에서 統一問題의 聯邦制的 解決이 不可能하다는 것은 常識에 속한다。그럼에도 金日成이가 올날까지도、聯邦制案을 主張하는 것은、北傀가 國際的 同情과 認識을 얻기 위한、또한 南韓의 굳은 反共産主義態度를 弱化시키기 위한、그리고 政治에 동요를 劃策하여 統一을 渴望하는 國民의 熱意를 야기시킴으로 機先을 先取하기 위한 宣伝的 計略이 內包된 것임이 分明하다。

따라서 本稿는 北傀가 지금까지 主張하고 있는 聯邦制案의 本質과 戰略的 企図를 糾明하여 統一方案으로서의 不當性을 밝히고자 하는데 目的이 있다。

二、統一모델과 聯邦案

分斷(division) 또는 分裂(disunion) 國家를 하나로 統一(統合)하는데는 여러가지 方法과 形態를 가상할 수 있겠으나 大体的으로 單一的 統合모델과 複合的 統一모델로 区分할 수 있다。單一的 統合모델에는 併合(annexation)과 合併(amalgamation)의 類型이 있고 複合的모델에는 國家聯合(confederation)과 聯邦(federation)等의 諸類型이 있다。이 중에서도 우리의 關心을 끄는 것은 聯邦案이다。

聯邦은 역사상 독립된 政治單位를 이루던 두 개이상의 共同社會를 더 큰 국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국가형태로서 對外的으로는 單一主權國家로 인정되나 對內的으로는 政府의 機能을 支分國과 分掌하는 제한된형태의 統治權行使를 하게 된다。그러나 일반적 경향은 聯邦政府의 기능확대를 통하여 實質的인 單一國家로 轉移하고 있다。

美國의 聯邦制나 蘇聯의 聯邦制는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 遺物로 남은 감이 없지 않다。즉 名目上 支分國은 그대로 독립된 政府를 유지하나 單一國家의 地方自治團体와 비교하여 별로 차이가 없는 정도에 머물렀다。

歷史的인 主要事例를 보면 聯邦에는 1787년 以後의 美國、1847年 以後의 스위스、1867년 以後의 카나다、1871年 以後의 独逸、1918年 以後의 蘇聯等을 事例로 들 수 있다。國家聯合과 類似한 形態로서 1867년부터 1918年까지 継続된 오스트리아 항가리間의 同君聯合(real union)이 있었으며 聯邦과 類似한 形態는 英聯邦(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이 있다。

以上에서 國家統合의 一般類型과 歷史的 主要事例를 살펴보았거니와 그 중에서도 統合指向의 강렬한 意志가 投合되는 等의 統合的 要因이 作用할 때 聯邦形成이 可能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순수한 뜻에서의 聯邦制라면 많은 民衆이 지지할 것이 예상된다。그러나 문제는 聯邦制를 他方을 併合하려는 中間戰略으로 악용、려면 복잡해진다。北韓側이 계속 주장하고 나서는 聯邦制가 바로 韓國民의 統一念願을 교묘히 利用하여「南半部解放」의 징검다리로 쓰려는 계획임은 우리는 잘 알고 있다。진정한 뜻에서의 國土統一을 위한 聯邦案은 쌍방이 모두 開放社會이고 인민들의 의사가 자유롭게 政策에 反映되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의 경우는 聯邦制의 成立可能性은、아주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三、南北韓聯邦案

1、內容

북괴의 平和統一方案의 一環으로서 金日成이가 主張한「南北聯邦制」는 1960년의 8·15紀念式에서 行한 그의 演說에서 비롯된다。그리고 分斷된 独逸을 再統合할 方法으로 1957년 東独이 이와 類似한 聯邦制度를 提案했던 實例에서 金日成은 이러한 着想을 얻은 것이 分明했다。이것은 우리의「6·23宣言」을 拒否하는 北傀의 五大綱領」的 對抗에서 새삼 捻出되어 나온 것이다。

南北聯邦制提案의 骨子는 當分間 南北의 現政治制度을 두고 兩政府의 独自的인 活動을 保存하면서 두政府의 代表들로 구성되는「最高民族會議」를 組織하여 주로 南北간의 經濟·文化発展을 調節하자는 內容이었다。여기서「南北韓이 각각 現在의 政治体制를 그대로 둔다」고 云云한 대목은 韓半島에 聯邦政府樹立을 考慮치 않고 있다는 点에서 聯邦보다는 國家聯合性格이 농후하다고 분석된다。

2、北傀聯邦制案 提議의 배경및 經緯

1953年의 休戦以後 金日成은 共産化 統一을 副次的 問題로 돌리고 政治的 安定(金日成体制의 堅固化를 위주로 하여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觀点에서 볼 때、北傀聯邦制의 內容은 外形上으로는 國際法上 4個의 統合類型가운데 聯邦을 가장한 國家聯合에 가까운 것이나 實際的으로는 共産主義的 併合이라고 하겠다。

해방된 지 33년、建國한 지 30년、보통 한세대로 치는 이 期間은 우리에게 있어서 民族의 分斷이란 現實과 民族의 統一이란 염원이 민족의 지상의 문제로 제기된 지상의 과제로 하다。

南北間의 体制的 異質性이나 排他性이 더욱 심화되어지는 현실에서 統一에의 길은 더욱 요원하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南北聯邦制는 基礎的인 要件인 理念的 同質性을 결여하고 南北韓의 各己 相反되는 異質的인 思想理念 体制를 그대로 접어두고 外形으로만 合致하자는 것이니 聯邦政府가 追求해야 할 理念과 目標가 存立할 수 조차 없는 虛構性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虛構的인 것을 北韓은 되풀이 하여 主張하고 있는 것은 聯邦制 自体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聯邦制의 實施를 平和統一을 假裝한 革命方式의 統一戰略을 展開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단계로 볼 뿐인 것이다。

둘째로는 現實的 与件을 전혀 考慮치 않고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단순한 國号만으로 聯邦이 可能한 것은 아니다。四半世紀 以上의 思想·理念 面에서의 對立을 가져왔다。

따라서 모든 面에 있어 同質性보다는 異質性이 深化된 狀態에서 聯邦國家를 形成할 때 그 結果는 現在보다 더 무서운 不信과 對立關係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聯邦制實施에 앞서 累積된 不信과 誤解가 풀어져야 하며 아울러 異質化問題를 克服해야 하며 새로운 信義에로 回復이 先決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然한 그런데 北韓은 이를 度外視하여 급하게도 그들의 偽裝統一戰略에로 誘導하려는 것은 非現實的인 虛妄한 処事라 아니 할 수 없다。

셋째、「두개의 韓國」을 前提로 共産化統一을 劃策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北傀는 실지로 두개의 韓國을 劃策하는 方向에서 아니、韓國을 고립、도태시키려는 意図를 가지고 그간 집요한 外交活動을 벌여 왔다。종래의 南北聯邦制에」고려연방공화국」의 國号를 보충한 것도 UN총회에서의 北傀의 宣伝活動을 뒷받침하기 為한 것이었다。

北傀가「高麗聯邦共和國」을 通하여 어떤 方法으로、또는 어떤 形式으로 共産化統一에 봉사하고 공헌하려할 것인가는 그 모두를 測定할 수는 없는 일이겠으나 그 中에서 한 가지 명백하게 내다 볼 수 있는 것은 聯邦成員의 이름으로 韓國에 對하여 反共政策을 聯共政策으로 바꾸는 것을 위시한 이른바「人民民主革命」을 위한 与件造成에 必要한 條件을 강요하려 들 것은 틀림없을 것 같다。

北傀가 高麗聯邦共和國의 國号를 提議한 것은 南北聯邦制에 依한 共産化統一의 行程을 現實的 日程에 올려놓기 為하여 一定한 段階의 戰略的 조치로 내세운 것이다。만약 南과 北이 각각 UN에 加入하게 될 때는 聯邦國家의 政治的 올타리안에서 北의 영향력으로 南을 赤化하는 일이 妨害받게 될것이기 때문에 南北의 UN同時加入을 反對하고 聯邦制에의한 하나의 國家로서 加入을 고집하면서 主張하게 된것이다。

四、結論

以上에서 살펴보았듯이 北傀의 聯邦制는 國際法上 聯邦의 形式보다는 國家聯合에 가까운 것이나 實際的으로는 併合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特히 朴正熙大統領의「8·15宣言」과「6·23宣言」에 따른 北傀 南北聯邦案은 사실상 現狀認定을 바탕삼아 現狀否認을 主張하는 二律背反的 統一戰略인「五大綱領」에 입각해 宣伝効果만을 노린 提案인 것이다。

北傀는 7·4共同声明에서 合意한 事項들은 履行하지는 않으면서 聯邦制가 實施되면 經濟的인 合作스포츠交流 文化的인 交流 言論人交流등을 通해서 南北間의 不信이 해소되고 이해와 신뢰가 증진된다고 固執하고 있다。南北對話도 이뤄지지않는다。現狀況下에서 또한 南北社會의 完全開放이나 秋夕省墓客의 相互訪問과 같은 現實的이면서도 必要한 提議마저 拒否하는 北韓이 도대체 어떻게、聯邦制의 實施를 固執하면서 主張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北傀의「南北聯邦案」은 對話拒否態度 指彈輿論을 糊塗하고 韓國의 平和指向立場의 正當性을 弱化시키려는 劃策 宣伝効果만을 노린 가공적인 偽裝提案에 지나지 않음을 証明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東独의「울브리히트」가 兩独간의 國力競争에서 西独側의 優勢로 귀결되었을 때 聯邦制를 通한 共産化統一政策을 포기하고만 事實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北傀의 金日成도 머지않아 우리의 優勢한 國力앞에서 聯邦制主張을 스스로 撤回하고말 것이라 생각된다。

南韓의 反共意識 弱化시키기위한 計略

聯邦成立의 先決要件은 전혀 言及안해

北傀의 聯邦制案이 間歇的으로 北傀에 의해 主張되어 오다가 朴大統領의「6·23宣言」이 発表된 그날 五大綱領의 하나로서「高麗」라는 國号를 따다 붙여 다시 提議했으며 금년에 金日成은「초세스쿠」루마니아大統領의 입을 빌어 다시 聯邦制案을 끄집어 내게 된 것이다。

특히「6·23宣言」以後에는 北傀가 聯邦制를 主張할 때 종래와는 달리 우리 韓國으로서는 도저히 受話할 수 없는 反對의 입장인 것처럼 對內外的으로 謀略宣伝하려는데 聯邦制主張의 또 다른 속셈이 깔려 있다。

다섯째、南北聯邦制가 實施되면 北傀는 機會를 보아 武力挑発을 감행한 후 그것을「內乱」으로 劃策하여 국제적인 對韓支援을 断絶시켜 共産化統一을 이룩하려는 底意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北傀聯邦制의 戰略的企圖

北傀의 南北聯邦制案이 그네들의 宣伝用語에 지나지 않음은 南北韓關係에서 이 提議가 內包하고 있는 底意 즉 戰略的 企図를 要約해 보면、

첫째、駐韓美軍 撤收를 비롯한 韓·美의 共同防衛및 協力關係를 弱化 乃至 断絶시키자는 것이며 韓國과 民主主義 体制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것이다。

둘째、南韓의 反共体制와 反共意識을 弱化시키려는 劃策이며 이를 통해 對南武力挑発의 与件을 造成하려는 北傀의 意図를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南北韓關係에 있어 北傀가 마치 統一을 平和的으로 達成하려는데 반해 韓國은 경제적인 要件인 理念的 同質性을 결여하고 南北韓의 各己 相反되는 異質的인 思想理念 体制를 그대로 접어두고 外形으로만 合致하자는 것이니 聯邦政府가 追求해야 할 理念과 目標가 存立할 수 조차 없는 虛構性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虛構的인 것을 北韓은 되풀이 하여 主張하고 있는 것은 聯邦制 自体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聯邦制의 實施를 平和統一을 假裝한 革命方式의 統一戰略을 展開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단계로 볼 뿐인 것이다。

둘째로는 現實的 与件을 전혀 考慮치 않고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단순한 國号만으로 聯邦이 可能한 것은 아니다。四半世紀 以上의 思想·理念 面에서의 對立을 가져왔다。

따라서 모든 面에 있어 同質性보다는 異質性이 深化된 狀態에서 聯邦國家를 形成할 때 그 結果는 現在보다 더 무서운 不信과 對立關係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聯邦制實施에 앞서 累積된 不信과 誤解가 풀어져야 하며 아울러 異質化問題를 克服해야 하며 새로운 信義에로 回復이 先決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然한 그런데 北韓은 이를 度外視하여 급하게도 그들의 偽裝統一戰略에로 誘導하려는 것은 非現實的인 虛妄한 処事라 아니 할 수 없다。

셋째、「두개의 韓國」을 前提로 共産化統一을 劃策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北傀는 실지로 두개의 韓國을 劃策하는 方向에서 아니、韓國을 고립、도태시키려는 意図를 가지고 그간 집요한 外交活動을 벌여 왔다。종래의 南北聯邦制에」고려연방공화국」의 國号를 보충한 것도 UN총회에서의 北傀의 宣伝活動을 뒷받침하기 為한 것이었다。

北傀가「高麗聯邦共和國」을 通하여 어떤 方法으로、또는 어떤 形式으로 共産化統一에 봉사하고 공헌하려할 것인가는 그 모두를 測定할 수는 없는 일이겠으나 그 中에서 한 가지 명백하게 내다 볼 수 있는 것은 聯邦成員의 이름으로 韓國에 對하여 反共政策을 聯共政策으로 바꾸는 것을 위시한 이른바「人民民主革命」을 위한 与件造成에 必要한 條件을 강요하려 들 것은 틀림없을 것 같다。

北傀가 高麗聯邦共和國의 國号를 提議한 것은 南北聯邦制에 依한 共産化統一의 行程을 現實的 日程에 올려놓기 為하여 一定한 段階의 戰略的 조치로 내세운 것이다。만약 南과 北이 각각 UN에 加入하게 될 때는 聯邦國家의 政治的 올타리안에서 北의 영향력으로 南을 赤化하는 일이 妨害받게 될것이기 때문에 南北의 UN同時加入을 反對하고 聯邦制에의한 하나의 國家로서 加入을 고집하면서 主張하게 된것이다。

基礎的要件인 理念的 同質性 결여

기회를 보아 武力挑發감행의 底意

四、結論

以上에서 살펴보았듯이 北傀의 聯邦制는 國際法上 聯邦의 形式보다는 國家聯合에 가까운 것이나 實際的으로는 併合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特히 朴正熙大統領의「8·15宣言」과「6·23宣言」에 따른 北傀 南北聯邦案은 사실상 現狀認定을 바탕삼아 現狀否認을 主張하는 二律背反的 統一戰略인「五大綱領」에 입각해 宣伝効果만을 노린 提案인 것이다。

北傀는 7·4共同声明에서 合意한 事項들은 履行하지는 않으면서 聯邦制가 實施되면 經濟的인 合作스포츠交流 文化的인 交流 言論人交流등을 通해서 南北間의 不信이 해소되고 이해와 신뢰가 증진된다고 固執하고 있다。南北對話도 이뤄지지않는다。現狀況下에서 또한 南北社會의 完全開放이나 秋夕省墓客의 相互訪問과 같은 現實的이면서도 必要한 提議마저 拒否하는 北韓이 도대체 어떻게、聯邦制의 實施를 固執하면서 主張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北傀의「南北聯邦案」은 對話拒否態度 指彈輿論을 糊塗하고 韓國의 平和指向立場의 正當性을 弱化시키려는 劃策 宣伝効果만을 노린 가공적인 偽裝提案에 지나지 않음을 証明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東独의「울브리히트」가 兩独간의 國力競争에서 西独側의 優勢로 귀결되었을 때 聯邦制를 通한 共産化統一政策을 포기하고만 事實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北傀의 金日成도 머지않아 우리의 優勢한 國力앞에서 聯邦制主張을 스스로 撤回하고말 것이라 생각된다。

JOKO SHOPPING CENTER OPEN 9月30日

제주의 새명물 조코쇼핑센터 탄생!

三多의 섬 제주에
새로운 명물이 탄생하였읍니다.
새로운 진열, 판매방식을 도입한
조코쇼핑센타는 의류, 일용품에서 식료품에
이르는 1천여종의 상품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최초로 수입상품코너를
비롯하여, 소비자와 메이커를 직결하는
완벽한 공급체제를 갖추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저희 조코쇼핑센타는
앞으로도 값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여
즐거운 쇼핑이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좋은 상품 싸게파는
조코쇼핑센터
제주시 연동 신제주 재일아파트 상가동 101호

조코쇼핑센터 개점기념
3,000명에게 기념품 증정

世界속의 大學·大學生들 <1>

東京大學

梁重海 (國敎科敎授)

日本의 젊은이들의 憧憬의 對象이 되고 있는, 이른바 「아까몽」(赤門) 이란 이름으로 代稱되고도 있는 도오꾜오(東京) 大學은, 日本의 頭腦를 養成해내고있는 總本山으로 理解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닌듯 하다.

「아까몽」으로 불리워지고도 있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同大學의 「홍고오」 指稱하는 캠퍼스를 따로 「고마바」 캠퍼스로는 「고마바」(駒場) 캠퍼스가 있다.

東京大學의 修業年限 4個年中 前期課程 2年은 敎養課程이고, 後期課程 2年은 (醫學部 醫學科만은 4年) 各學部에서 敎育을 하고 있거니와 前期의 敎養課程 2年은 「고마바」 캠퍼스에서 하고 있으며 各學部와 大學院은 「홍고오」 캠퍼스에서 하고있다.

東京大學은 昨年(1977)에 開校百年을 記念하는 多彩로운 記念行事가 베풀어졌던 것이므로, 大學의 歷史도 百年을 넘긴 것이 된다. 그런데 百年前인 1877年, 官立 東京大學이라하여 처음으로 開校한 것으로는 되고 있으나, 그 때에 이 大學이 無忽然히 發足한 것은 아니다. 이 大學이 開校되기에 앞서, 德川幕府時代의 末期에 이미 昌平坂學問所, 醫學所, 開成所가 있어, 이 3個의 敎育機關이 오늘의 東京大學設立의 基礎가 되었다면, 昌平坂學問所가 官學으로 認定된 것이 1797年이 되므로, 여기에서 起算되는 東京大學의 歷史는 170年이 되는 셈이다.

綜合大學인 東京大學은 우리의 單科大學에 該當하는 10個 學部로 編成되고 있거니와, 그 內容은 法學部, 醫學部, 工學部 文學部, 理學部, 農學部, 經濟學部, 敎養學部, 藥學部 등이며, 學生數는 (1977年現在) 學部學生 14,283名과 大學院學生 3,860名(修士 1,972名 博士 1,828名) 計 18,083名(內女子 1,177 外國人 214) 其他 研究生, 聽講生 등 53

<東京大學 綜合図書館앞에 선 筆者>

大學院 研究科 專門課程으로는 人文科學研究科, 敎育學研究科, 法學政治學研究科 社會學研究科, 經濟學研究科, 理學系研究科 工業系研究科, 農學系研究科, 醫學系研究科 藥學系研究科등 10個의 專門課程이 있고 附屬研究所 ∧( )안의 數字는 分野別 部門數∨로는 醫科學研究所(23), 東京天文臺(12), 地震研究所(17), 東洋文化研究所(12), 社會科學研究所(17), 新聞研究所(7), 生産技術研究所(43), 史料研究所(11), 応用微生物研究所(12), 宇宙線研究所(15), 原子核研究所(14), 物性研究所(22), 海洋研究所(15), 宇宙航空研究所(38) 등이 있는데, 이 各 研究所의 細分된 分野別 部門名을 들자면 總249部門에 達한다. 이 밖에 9個의 共同利用센터, 學部附屬의 研究施設·센터等을 合하면, 附屬研究機關및 研究部門의 數는 방대한 것이 되며, 宇宙航空研究所등 5個의 附屬研究所는 全國共同利用研究所라고 하겠다. 制度上 學部附設로 되고있는 研究所도, 그 目的으로서는 全國의 研究者에게 利用토록 되고 있는 것이 東京大學 各附屬研究所의 特徵이라고 하겠다.

東京大學의 자랑의 하나로는 附屬図書館 韓國과 關聯이 있는 韓國의 稀貴本을 도 많다. 韓國의 여러 大學에서 이를 貸出해 내고 影印本을 뜨고 난 다음, 貸出本을 返納하면서 그 影印本도 期보되어, 다시 東京大學에 所藏되고 있는것들이 書籍리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어 利用하고 있다는 것을 實感할 수 있다.

韓國에는 없는, 韓國關聯의 稀貴本들도 많다. 韓國의 여러 大學에서 이를 貸出해 내고 影印本을 뜨고 난 다음, 貸出本을 返納하면서 그 影印本도 期보되어, 다시 東京大學에 所藏되고 있는것들이 書籍리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어 利用하고 있다는 것을 實感할 수 있다.

館內에는 開架式을 包含한 各種閱覽室이 있는데, 學生들이 受講上 必要하다고 敎授들에 依하여 指定된 指定書, 敎養을위한 一般書등은 開架式 閱覽室에 꽂혀있어, 館內閱覽에는 事務的인 節次 없이 自由로이 閱覽할 수 있는 敎授閱覽室이 따로 있다.

館內에는 開架式을 包含한 各種閱覽室이 있는데, 學生들이 受講上 必要하다고 敎授들에 依하여 指定된 指定書, 敎養을위한 一般書등은 開架式 閱覽室에 꽂혀있어, 館內閱覽에는 事務的인 節次 없이 自由로이 閱覽할 수 있는 敎授閱覽室이 따로 있다.

5部 15卷까지 1個月以內, 學生·職員 前敎官은 2卷까지 1週以內인데, 放學中은 이期間이 長期로 延長된다.

圖書하고 關係가 깊은 것이 複写室이다. 東京大學에는 구석구석마다 「코삐이·센터」의 표찰이 보인다. 複写室을 그렇게도 많이 利用하고 있다는 것을 實感할 수 있다.

그 複写料가 곳에 따라 上下가 많다. 學科 學生들이 自体的으로 運用하는 複写室이 있다. 複写料가 가장 헐해서, 菊版이면 2面이 複写가 되는것으로 枚當 10엔, 學部別로 있는 複写室일 경우 枚當 30엔, 図書館에 있는 複写室에선 學內人士 50엔, 學外人士 40엔, 學外人士 50엔이 図書館 複写室은 館外貸出 不可能의 書籍까지도 複写할 수 있으니 많이 利用된다.

學科 學生들이 自治的으로 運用하고있는 複写室이 利用度가 가장 높다. 같이 受講한 學生끼리, 學友의 노오트를 빌려다가 그대로 複写하는 경우도 많다. 무슨 일로 講義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도 學友의 노오트를 複写한다. 講座와 關聯된 書籍이나 文獻이 図書館이나 學友 또는 敎授에겐 없어도 自己에겐 없을 경우 그것도 빌려내가지고는 複写室로 가지고 간다. 學部別 複写室이나 図書館內의 複写室에서는 製本도 한다. 図書館에 하나밖에 없는 稀貴本도 複写室에 갖다 맡겨놓으면 5日이면 그대로 製本되어 나온다.

學生들의 캠퍼스內 生活을 보기에앞서 그들의 一年間의 授業日程을 보면, 一年을 夏學期 冬學期인 두 學期로 나누고 있으며, 77學年度의 學事日程表는 다음과 같이 되고 있다.

夏學期授業開始=4月11日-同終了 7月9日. 夏季休業=自7月11日-至9月10日. 授業開始=9月12日-同終了 9月22日. 夏學期修了試驗 自9月24-至9月30日. 冬學期授業開始=10月1日-同終了12月24日. 冬季休業=自12月25日-至1月7日. 授業開始=1月9日-同終了1月31日. 學年末修了試驗=自2月1日-至2月7日

學校의 正門 赤門 彌生門등의 大門은 아침 7時에 열고 저녁 日沒時에 닫고 있으나 小門은 아침 6時에서 밤 12時까지 열려있어, 敎授와 學生들은 恒時 出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學生 生活의 必需品은 大部分이 大學 構內売店에서 解決된다. 누구나 「東大人」이되면 「生協」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데 「東大人」으로서의 資格을 얻는날 「生協」에 2천엔을 投資하면 「生協」의 株主가 되고, 生協 會員証을 發給받게되는데 이 會員証을 提示하면 市中 価格보다 越等히 헐한 값으로 물건을 購入할 수 있게 된다. 図書, 學用品에서 洋服구두는 勿論 洋酒, 生鮮, 과일까지, 市場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 없다. 構內売店을 자주 들러다보면 季節의 趣味를 強烈하게 느끼게 되는데 特히 被服店에 들러다보면 봄에서 여름에로 여름에서 가을에로 이러한 季節의 바뀜이, 陳列된 商品에서 直感하게 된다. 「東大人」으로서의 資格을 얻는날 入會時의 投資金을 제외하고 그 이상의 金額은 돌려받는다.

筆者가 東大에 있던 昨年(1977年)은 마침 東大開校 百年을 祝賀하는 紀念行事가 있었고, 今年5月에는 濟州大學이면 「龍潭祭」에 該當하는, 第51回 「五月祭」 行事를 볼 수 있었다. 濟州大學과 마찬가지로 行事期間은 3日間이었는데 規模의 크기와 그 多樣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東大人 全員이 빠짐 없이 參與하고 있을 뿐 아니라 學父母 他大生 一般市民까지 參與하여 大學 構內는 完全히 祝祭人波로 뒤덮이고 있었다. 各學部의 特性에 따른 行事, 各學科의 特性에 따른 行事, 各研究所의 特性에 따른 行事, 各 써클의 特性에 따른 行事, 多樣 그대로였다.

캠퍼스 全構內가 室內이면 研究発表 세미나 場으로 室外이면 書店, 雜貨店, 各種 商品이 陳列된 商街로 變해버린다. 卷當 百엔 均一의 古書店에는 아직도 利用価値가 높은 專門書籍들이 陳列되어 나오고 文學써클 學生들은 自己네 同人誌를 벌려놓고 팔고있다. 農學部 林學科 學生들이 재미있는 나무의 苗木들은 陳列하여 팔고 있다. 医學院生들이 하얀 까운을 입고 앉아 줄지어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해 血圧을 測定해주고 있기에 筆者도 들어섰다가 血圧이 危險水位에 達했음을 警告받았으며 美術科 學生들이 줄지어 앉아 肖像画를 그리고 있기에 一金 5百엔을 내고 肖像画를 그려받고 記念으로 접어 두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포오크·댄스, 한쪽 구석에서는 노래자랑, 外國人學生들이, 自己 나라의 學生끼리 自己 나라의 民芸品들을 展示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百年의 樹齡을 헤아리는 銀杏나무가 하늘을 가리우고 있는 東京大學은 그 늙은 銀杏나무처럼 年輪을 쌓았고, 그 아름이 념는 銀杏나무의 줄기와 같이 묵직해보였으나 그 銀杏나무의 잎과 같이 싱싱하다. 그래서 이 캠퍼스에 드나들고있는 젊은이들의 눈동자에서, 그 젊음의 앞길을 겸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祝祭때는 學父母도 參與해

모든 生必品은 構內賣店서

<사진은 소회의실에서의 좌담회 광경>

▼吳: 이렇게 자리해 주어 고맙습니다.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新任 護國團幹部들께 축하와 偕前의 여학생數는 하나의 단과대학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러방면에서 적잖이 소외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여학생부에서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여성교육에 대한 강연을 개최하거나 해서 여학생들도 行事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쓸 생각입니다.

▼玄: 여학생들을 위한 활동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모쪼록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학생과장: 여성교육에대한 강연에도 性敎育, 美容講座등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특히 性敎育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關係人士와 긴밀한 상의를 통해 주신해 보겠읍니다.

▼吳: 指導敎授側가 벌로 활용되고 있지않는것 같읍니다. 敎授와 학생간의 거리를 좁혀 친숙하와 偕前의 여학생數는 하나의 단과대학을 이룰 수 있읍니다.

▼李: 우리 대학의 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해 다방면으로 계획

▼玄: 학도호국단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가 미약하고, 학도호국단의 임무와 기능에 대해 잘 인식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불신임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읍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불신풍조를 타파하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가지면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일할 생각입니다.

▼吳: 여학생부장도 한 말씀하시지요.

▼학생과장: 지도교수문제의 난점은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고 시설부족으로 인해 대화의 자리마련이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 없는지, 또 학교당국에 건의하고 픈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 학도호국단에 대해 잘 인식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불신임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또 호국단과의 유기적인 관계로 대외적인 活動과 取材에 협조가 있으면 좋겠읍니다.

▼高: 대학신문의 學生論壇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홍보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광고난을 좀 더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실렸으면합니다. 예를 들어 入試試驗 같은 것 말입니다.

▼吳: 學生課와 보다 긴밀한 연락으로 대학신문의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을 위한 교경난을 만들어 좀 더 생동감 있는 지면구성을 해보려 합니다. 지면구성에 대한 좋은 의견과 많은 참여를 바라겠읍니다. (이하줄임)

「對話의 不在를 克服하자」

——新任 學徒護國團 幹部와의 좌담회 要旨

日 時: 1978年 10月 6日 午後1時
場 所: 本大學 소회의실
참석자: 김승호 學生課長
고성준敎授 (학생지도연구소상임위원)
현영남(團 隊 長), 고창수(訓練部長)
이여주(女學生部長), 오기환(本報編輯長)
記 錄: 변성구 記者

紋波

高峯珍(敎敎·2)

흘러 흘러
歷史의 수로에
전설따라 여울댐은
가이 없는 깃발의 흐느낌인가.

먼 훗날
초록 꿈을 기약하며
영글어 간 주름진 年輪의 뒤안길에
살포시 스쳐 간 웃자락 깃.

빛 바랜 고독을 잉태한
쓰디 쓴 아픔의 진통은
애틋한 설움의 몸부림.

숱하게 스쳐 간 세월의 아픔도
따사로운 햇살에 미소 머금고
그지 없는 창공을 戀慕한 눈망울이여.

오로지 내일의 발돋움에
침묵의 戀歌가 있어라.

70년대 한국문학이 수확한
오늘의 女流 문제작가
徐永恩 문학의 魔力!
사막을 건너는 법
徐永恩 小說集

천년전 알라딘의 신비한 魔力이 번쩍이는 카로운 문맥, 우리 시대의 어둠과 허무를 레이저로 투시하듯 정교하게 벗겨가는 섬세한 필치, 소설의 상투성을 극복하고 예술의 심층적 깊이로 심화시켜 가는 오늘의 女流 문제작가 徐永恩 문학의 개가!
新4·6判/354面/화려장정/정가1,200원
文學藝術社
서울·중구을지로2가148-6 ☎6595

各種有名圖書 月刊잡지販賣
학생서점
제주시용담동(향교맞은편) ☎2-6405

'누이야, 원래 싸움터였다,
(詩「濟州바다」에서)

文忠誠詩集
濟州바다
純粹라는 그 진부하고 간지러운 抽象의 이름이 문득 文忠誠에게 부딪쳤을때의 아픈 감동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것은 기교가 채 침투하지 않은 곳의 세계, 이를테면 진정의 세계이다.
—文學評論家 金柱演(漢大교수)—
文學과知性社刊 △서울 주요 서점에서 팔고있읍니다.

梁相翊 英隨筆集
漢拏山의 메아리
(ECHOES OF MT. HALLA)
훌륭한 册입니다. 濟州島를 理解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Joseph W. Mathews 博士 (社會學·神學) (I. T. I. I. C. A. 總幹)
平易하고 優麗한 隨筆体로 쓴 濟州島의 興味진진한 民族說話와 觀光가이드.
—서울大學校 張旺祿 博士 (英文學)
由緖깊은 濟州島의 歷史와 삶을 平明한 英語로 그린 愛情과 叡智의 에세이集으로 濟州島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된다.
—韓國外大 李永傑 博士 (英文學)
取扱所 서울: 범한·광화문서적·조선호텔외서부
제주: 제주서림·KAL호텔매점

詩文學會 詞華集 IV
同行
<同人>
姜通源 賈永心
具石本 金勇彦
金容材 김지철
朴健 박진관
白利雲 孫海鑑
沈相運 安洙璟
嚴基昌 嚴昌燮
오승강 李錫根
李永傑 李日順
李在薰 이한호
林鍾成 전우용
曺南順 崔才煥
黃明輪
京城文化社刊